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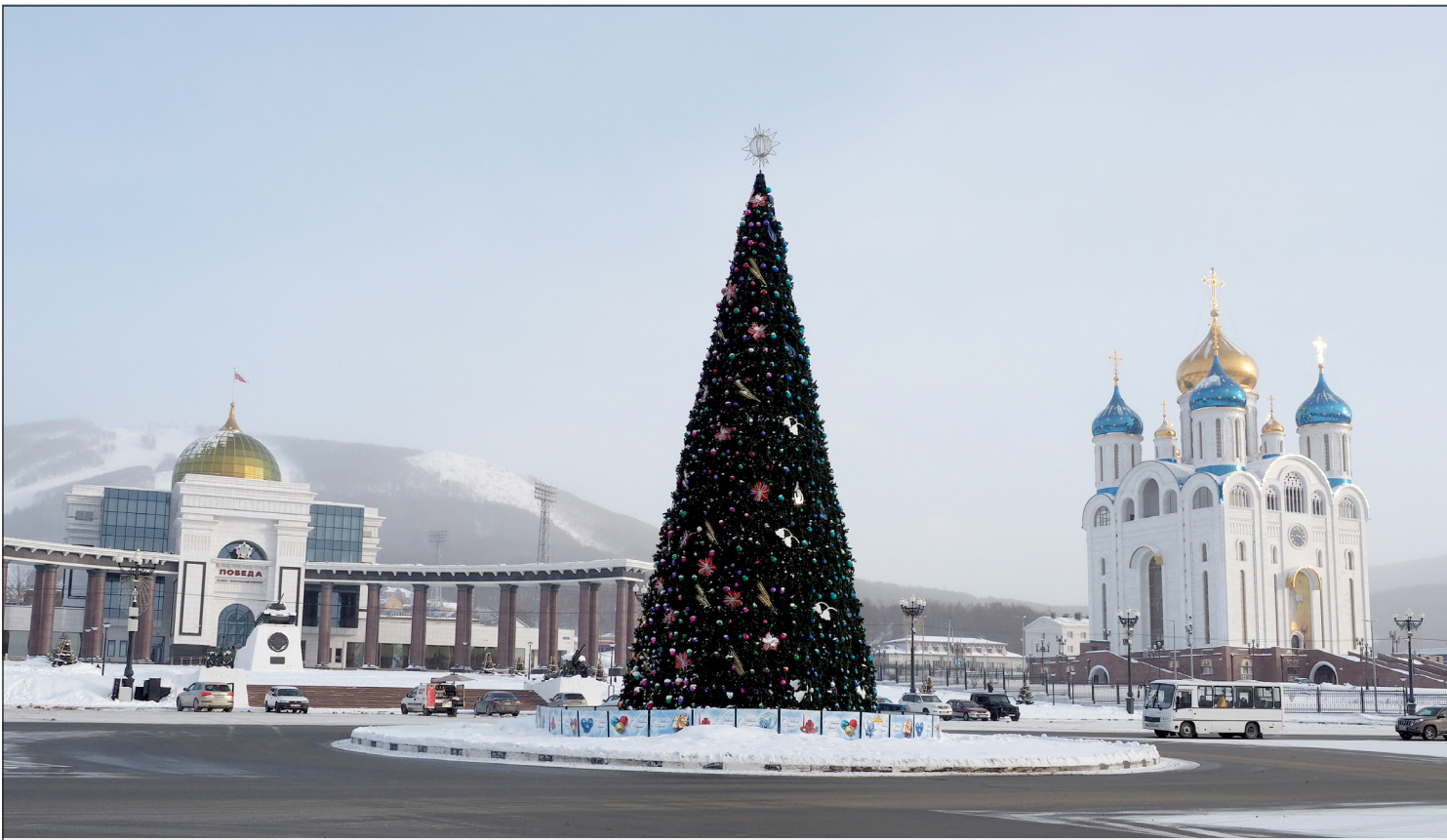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월 1일(금)
...(윤력 11월 18일)...

Пятница
1 января 2021г.
№ 51 (11691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승리) 광장의 새해 분위기.

(이예식 기자 촬영)

소중한 동포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갱신을 의미하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저물어가는 해에 우리는 위험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많은 자선 기획들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한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잘 시행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사할린 한인들의 소망과 기대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의 행복, 건강, 사랑, 안녕과 성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할린에 계시는 동포와 한국에 귀국하신 동포 어르신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날 정도로 외로워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버티어 이겨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동포 신문 대표로서는 바라는 것은 독자들께서 저희 신문과 연을 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민족신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뒷받침해주시는 분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광고주로 나선 전용식 <라직스> 치과병원 원장, <사흐콤>회사 이용님 대표 이사에게 큰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10년 이상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정성훈 피디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블로그를 통해 우리 신문을 후원하기로 한 모든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 동안 본지를 애독해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애독자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사할린 한민족지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많은 좋은 일들만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고려신문사 대표 배 빅토리아
2020.12.30

친애하는 사할린, 쿠릴 주민 여러분!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해 명절을 좋아하며 항상 이 명절에는 어떤 기적과 소원의 성취, 선물, 깜짝 이벤트 등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뤄지며 사할린주 구석구석까지 명절의 흥이 넘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익숙한 생활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결속되었으며 상부상조와 협력, 가족과 친지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에 우리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사업의 대표자들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사할린주의 의식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단합시켰습니다. 여러

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대규모로 일을 완수했습니다. 마침내 3천6백 명의 주민이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세 개의 새로운 학교가 개교했으며, '복수 학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공 장소와 주택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로를 보수하고 건설했으며 우리 섬들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이 모두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공로 덕입니다.

지금은 쉬면서 다가오는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재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겨울 명절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화목하게 보내게 하고, 따뜻한 감성과 행복한 순간들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강건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며, 모든 게 호전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실 작년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을 덮쳐 모든 계획과 희망을 엉망으로 만든 코로나19 팬데믹의 쓰나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와중에 행복과 희망이란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역경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담대함과 지혜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예상보다 일찍 개발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선진국부터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 길고 어두운 터널 끝의 햇빛을 본 느낌입니다.

끔찍한 코로나19의 교훈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건강이 소중하고, 또한 위기에 예상 외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과 큰 위기에는 국가와 사회단체의 기민한 대처 능



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기관은 각자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사할린 한인협회를 비롯한 각 동포단체가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용감히 싸워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동포들의 단합과 조직력이 보다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동포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염된 동포분들도 하루 속히 쾌차하시길 응원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황량한 들판을 묵묵히 가는 믿음직한 황소처럼 희망과 행복의 싹을 준비하고 키워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동포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
출장소 박기동 소장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1월 15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15 января 2021 г.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석배 대사와 인터뷰

'더 많은 사할린 동포가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2020년은 러·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와 관련 본사 **배순신** 기자는 주러 대한민국대사관 **이석배** 대사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대사님 보시기에 러시아와 한국 - 두 나라의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잘 발전하였는지요?

지난 1990.9.30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인적교류,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는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는 1994년 건설적 동반자관계, 2004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양자 관계의 틀 역시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정상 차원의 교류 뿐 아니라 경제협력 강화, 국민들 간 상호 방문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견실한 기반을 마련해 왔고, 이러한 관계 심화 정도는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교 이래 총 32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차례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교역액은 1992년 2억불에서 2019년 223억불로 110배 증가하였습니다. 인적교류 역시 2014년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80만명에 달합니다.

극동지역에도 한-러 양국간 9개 다리 협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연해주 등 극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양국 정부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300여 개에 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념행사를 당초 계획과 추진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2020.6월 양국 총리 통화, 2020.9월 양국 대통령 통화 등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며,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일부 기념행사를 온라인 상에서 추진하는 등 수교 30주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념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30년 간 한국과 러시아가 제반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30년은 양국 관계의 도약을 이루어 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봄.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공영을 향한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에 기초한 상호 이해 강화라는 세 가지 양자 협력의 축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러간 협력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양국 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 중에서도 경제 분야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교역 규모 확대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LG전자, 롯데호텔, 팔도, 연해주 영농기업 등 제조업·호텔·유통업·식품·농업 등 분야에 걸쳐 약 150여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는 더 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훨씬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우수한 제조기술 및 상용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러 양국은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 나아가 대유라시아파트너십 전략을 접목하여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

러 양국 간 중점협력분야로 9개다리 협력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어 2019.2월 양국은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9개다리 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기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확대·개편한 「9개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행동계획 2.0에는 ①에너지 ②철도·인프라 ③조선 ④항만·항해 ⑤보건의료 ⑥농림·수산 ⑦투자 ⑧혁신플랫폼 ⑨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세부 협력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개 다리 협력은 한-러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분야에서는 우리 조선사가 러시아 노바텍사의 북극지역 LNG 프로젝트에 활용될 쇠빙 LNG 운반선 21척을 수주하여 15척을 인도 완료하였으며, 또 다른 우리 조선사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15척 공동건조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농기업들은 연해주에 진출하여 콩·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한국으로 수출 중입니다. 우리 수산업체들은 러 극동수역 조업권터 확보, 한-러 합작 수산업 설립을 통해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을 우리 식탁에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방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50헥타르 규모의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철도, 북극항로, 항만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 기반 조성



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활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안전인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양국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여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여, 러시아인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좋다는 것이 동포로서 자랑스롭습니다. 우리 재러 동포들에 대한 대사님의 이미지는 어떠신지요?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53%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요 생필품에 지출

사할린 주민 53%가 월급의 50~69%를 주요 생필품에 지출하고 있다. 이는 주택 관리비 및 식품, 생활 필수 항목에 대한 지출이다. 이들은 3만~9만 루블리의 월급을 받는 주민들로 대부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보기 드문 평균 11만 루블리의 높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출률을 보이고 있다.

9만 루블리의 임금을 받는 주민은 47%로 이들의 생필품에 대한 지출 예산은 37% -46%로 적은 편이라고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통계를 밝혔다. 해당 통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에 대한 통계이며 장애인, 빈곤층, 연금 수급자, 다자녀 가구와 같은 특별 범주의 주민에게는 주와 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197개 지원책이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23개의 추가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53%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тратят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зарплаты на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53 процента сахалинцев тратят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зарплаты — от 50 до 69 процентов —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нужды. Это оплата услуг ЖКХ, еды, то есть того, без чего выжить нельзя. Это сахалинцы, зарплата которых колеблется в диапазоне от 30 до 90 тысяч. Несмотря на высокую средню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 110 тысяч рублей — большинств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их доходов не видят.

И только 47 процентов получают свыше 90 тысяч.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у них уходит меньшая доля бюджета на обязательные траты: от 37 до 46 процентов. Такую

статистику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итогов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Речь идет только об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м населении. В отде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люди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нвалиды, пенсионеры, многодетные. Их поддерживают как область, так и город.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197 мер поддержки, 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ведены свои 23.

사할린주, 자연적 인구 감소

1월부터 10월까지 사할린주에서 자연적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 주민신분등록소에는 출생아 4천650명과 사망자5천228명이 등록되었다. 자연적 인구 감소는 578명이었고, 2019년 같은 기간에는 330명이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은 지방자치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 유즈노쿠릴스크 등 세 지역이다.

주내 혼인은 2천815건,이혼은 1천973건이 등록되었고 2019년 유사시기에는 혼인 2908건과 이혼 2348건이 등록되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사할린과 쿠릴에 체류한 사람들은 1만6천96명으로 이중 54.5%가 영구 거주자이고, 사할린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1만7천132명으로 그중 78.6%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주 내에서 주거지를 변경한 사람은 6천55명이며 사할린로의 이주민 감소는 1천 36명이라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рост естественной убыли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октябр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4650 родившихся и 5228 умерших. Есте-

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578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30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т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815 браков и 1973 развода против 2908 браков и 2348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октябрь 2020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16 096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4,5%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7 132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78,6%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6055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036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 아동들을 위해 모아진 '기쁨의 바구니'

〈기쁨의 바구니들〉 전 러시아 행사에 사할린주 전 지역도 동참한 가운데 지역 정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참하여 '우리 함께' 사회운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제과류, 인형, 학용품 등을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것으로 사회적 비보호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새해 선물이 마련되었다. 새해 축하의 물결은 사할린의 다양한 지역의 30여 이상의 가정에 전달된다.

〈기쁨의 바구니들〉활동은 '우리 함께' 전 러시아 운동의 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사할린주 전 러시아 국민기금과 청년인재센터, 청년사업청이 지원하고있다.

(8면에 계속)

조성용 화백의 <나의 세상. 나의 세대>

사할린의 조성용 화백에게 지난 2020년은 특별했다. 조 교수가 회갑을 맞이했고 지난 12월 25일에 즈음하여 <나의 세계. 나의 세대>란 개인 전시회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가졌다.

"사실 회갑을 앞두고 이 세상, 저 세상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0세를 2월에 맞이했거든요."라고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조 화백이 필자에게 말하였다.

한민족로서 우리는 60년 인생에서 어떤 총결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수채화, 풍경화, 초상화 등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 화가동맹원인 조성용 화백은 사할린예술전문학교 디자인과 학장은 이번 전시회에 5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된 이 작품 대다수가 크기도 크고 멋있어 보였다. 조 화백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들은 주로 최근 2년 간 활동한 작품들이라고 한다.

풍경화에 대해서 조성용 작가는 사할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웰리칸 곳, 에프스타피아 곳, 쉬코탄 섬의 풍경 등은 밝은 색깔로 자연의 멋을 잘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 화백은 자주 쿠릴 섬들을 답사하여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전시회에는 여러 초상화도 소개되었는데 주로 창작을 하는 인물들의 초상화다. 작곡가 세르게이 웨르비츠키, 화백 유리 메텔스키, 시인 세르게이 타라카노브 등, 영감을 주는 얼굴들이다.

국내외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이번 전시회에 한국, 일본, 유럽 여행으로 몇몇 작품들을 시리즈로 소개했다. 서울의 골목들, 한 골목에 있는 사할린 동포 화백 주명수도 그렸다. 이 작품은 작년 5월에 김포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전시회로 방문했던 한국을 회상하고 있다. 그때 조성용 화가와 주명수 화백은 자신의 작품 50여 점을 한국 김포에서 소개했다. 이에 앞서 이 두 작가들의 작품은 경기도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한 바 있었다. 이렇게 몇 년 전 조성용 화백이 한 번 한국에서 전시했다면 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일본 홋카이도 여행 작품은 일본의 전통성을 잘 전해주고 유럽, 특히 체르노고리아 풍경화는 너무 멋있다. 많은 관객들이 이 작품 앞에 오래 머물렀다.

조성용 화백은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



심이 많았고 실력이 있어 사할린주 삿오네르•학생회관의 미술 동아리에서 미술을 배웠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여 이르쿠츠크전문예술대를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마친 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예술대학교(미술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미술 이론도 잘 알고,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가 사할린예술전문대학 교수로서 활동한 지 거의 30년, 28년이 넘었다.

조 교수는 학생 중 정말 재능있는 사람, 실력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아예 미술창작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주위에서 조 화백을 착한 예술인으로 보고 있는데 때로 필요할 때는 끈질기고 엄격하게 의견을 내세울 때가 있다고 조 화백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작품을 창조하는 데는 영감도 필요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에 조성용 화백의 창작, 경연대회 우승 등에 대한 기사가 자주 실리는 것은 조 화백이 사할린의 주요 화가로서 항상 감동을 안겨주고, 자신의 세상을 전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할린 한인에게는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사할린의 조성용 화백이다.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주 향토박물관에 오디오 가이드 기증

지난 29일(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이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을 찾아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6개를 기증하였다.

주 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은 사할린에 한인dias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 사할린 역사와 현황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토박물관을 자주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오디오 가이드는 한국 분들에게 사할린 알리기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기동 소장은 "이번에 작은 양의 선물이지만 앞으로 출장소와 박물관 간 협력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러•한 수교 30주년의 해에 한국 외교관들이 양국 간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점에서 이번 한국어 가이드 기증 프로젝트는 이미 2020년 초부터 논의가 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측에서 오디오 가이드에 향토박물관의 전시관 9개 안내 내용과 박물관 소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번에 시범내용으로 박물관 소개를 녹음했고 나머지 녹음자료를 차차 넘기기로 했다.

유리 알린 관장은 "우리는 이런 전문성 있는 오디오 가이드는 처음 기증 받았고 앞으로 한국 측과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사할린 한인사 소개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아버지와 아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다. 아버지는 고등학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만큼 공부를 잘 했고, 체육 대회에선 달리기 선수였고 술을 잘 마셨다.

겁 많고, 운동도 못하는 나는 완벽하고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학년이 오를수록 성격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내게 입을 다물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생이 되던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 아버지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몸과 말이 불편해졌고 밤마다 나를 기다렸다. 대학 신입생인 나는 날마다 신나게 놀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기억난다. 늦은 밤,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노라면 어두운 거실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유리문 밖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주방을 나서면서 아버지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힘없는 목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다.

"잘 자라."

"네."

나는 묻고 싶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예전처럼 혼내고 무시하시죠?'

아버지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알았다. 난 스무살이니까, 다 큰 남자니까.

몇 달 뒤 혼자 지리산에 갔다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곧 일어나실 거면서! 금방 퇴원하실 거면서!'

나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기억난다.



'잘 자라.'

'네.'

세월이 흘러 나는 아빠가 되었다. 내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물었다.

"아빠는 몇 점이야?"

나는 구십 점을 받았고, 가격은 천만 원, 엄마랑 똑같이 좋지만 아이스크림보다는 덜 좋은 아빠였다. 다행이었다.

일하다가 밤늦게 방으로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다. 따뜻한 숨결로 가득한 방에서 나는 아이들의 발을 잡고 기도한다. 좋은 아빠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보다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자주 생각난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겠다. 옛날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랬다. 힘들어도 표 안 냈고 부드럽게 말 할 줄 몰라 짧고 무뎡뎡했다. 속은 뜨겁지만 표현할 줄 모르던 사랑에 서툰 남자들.

스무 살의 나를 바라보며 어둠속에 서 있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화해를 하고 싶었겠지. 친해지고 싶었지만 먼저 말하지 못하고 밖에서 내가 불러 주기를 기다린 거다.

그것이 기회였다는 걸 오랜 뒤에야 알았다. 우리 둘 다 기회를 놓쳤다. 어느새 아빠가 된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린다. 내 아이들은 아빠를 기억하며 울지 않게 해 주고 싶다.

일 분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일이다. 병도 사고도 갑자기 찾아오니까. 사랑한다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서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한다.

광주에서 김남중

본사 편집부로부터 한해동안 본지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투고해주신 김남중 동화작가에게 감사인사를 올리며 사할린과 관련한 작가님의 새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С Н О В Ы М Г О Д О М !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 пороге новый, 2021 год. Конечно, этот праздник приходит к нам каждый год, но всё равно мы воспринимаем его как новый, добрый, желанный. Новый год — особый праздник, это символ веч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новых планов, достижений, надежд.

У каждого свои ожидания. Но по большому счёту все мы хотим, чтобы близкие были здоровы, чтобы в доме царил мир, дети радовали, жизнь была мирной, а мечты, даже самые сокровенные, обязательно сбывались.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опасным и коварным недугом — корона 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которая охватила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мира. Несмотря на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ограничения,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множество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д эгидой двух простых слов: милосердие и неравнодушие.

2020 год стал переломным годом в раз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 канун 75-о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который вступит в силу 01.01.2021г.

Закон, на который мы возлагал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и ждали более 20 лет,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не отразил все чая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овом году нам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немало насущных задач и вместе,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тал отражать интересы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ы уже нач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эту задачу, 23 декабря 2020 г. на встреч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11-ти стран мира, мы вновь обозначили, что к сожалению закон, принятый 30 апреля 2020 г. не отража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будут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которые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листнуть страницу страшной трагедии, произошедшей более 75 лет назад.

Я желаю, чтобы в 2021 году все наши чаяния и надежды, связанные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Законом, исполнились. И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лучили признание у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Пусть в новом году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каждой семьи произойдут перемены к лучшему.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сем вам успехов,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здоровь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пусть будут наполнены теплом и уютом ваши дома.

Желаю Вам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уверенности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С Новым годом, с новыми переменами, с новыми надеждами и с новыми пожеланиям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Юбилейная выставка Дё Сон Ена открылась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Далеко не все, что юбиляру хотелось показать, вместил большой зал музея. Притом, что на выставке "Мой мир. Мое поколение" он представил полсотни работ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свете чего отмазки иных его коллег, что на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нет времени, видятся несостоятельными. Потому что Дё Сон Ен насыщенную творческую жизнь не одно десятилетие сочетает с педагогикой. Вряд ли студент Иркутского училища искусств предполагал, что 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ы он будет связан с училищем. Но так получилось: мы говорим — отделение дизайн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подразумеваем — Дё Сон Ен. И тут ничего не попишешь: чтобы иметь дело с молодежью — скептиками, неучами и модернистами — над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быть в хорошей форме. В этом смысле он "тренер играющий" всю жизнь.

Дё Сон Ен из той немалой плеяды художников, у которого топливом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служит новизна впечатлений, выхваченных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утешествий. Выставка "Мой мир. Мое поколение" открывает его взгляд на мир вширь и вглубь, так что лента экспозиции раскручивается большим путевым дневником. Облегчая задачу зрителям узнать всю географию его странствий по земному шару, он даже собрал на баннере самые незабываемые знаки городов мира, где бывал, — Хакодате, Гимпо, Венеция, Котор, Сеул, Ницца... Как причудливая коллекция медалей, на нем собраны крышки канализационных люков (а российская участница явлена во всей своей чуждой натуральности в музей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поднял обыденное с земли и возвел в ранг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еличины.

Ведь как бы мы, люди, ни летали в мечтах и иллюзиях под облаками, но обитаем в земной, предметной, конкретной жизни. На холстах этого художника реальность "здесь и сейчас" приходит в возвышенном и преображенном виде: скрипка в руках музыканта как проводник к Богу, ящероподобная скала в Островековке отбрасывает зритель в юрский период, а блекнувшие угольки в ирори, традиционном японском очаге, уводят к корням, к началу родословной. Его живописные полотна дарят вкус, запах, сияющий цвет и эмоции. А некоторые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основательностью мне напоминают кованные панно, на которые краски выливаются горячей лавой. Кажется, что в прошлой жизни он мог быть кузнецом. Уж очень лихо жонглирует стихией огня и мрака. Оттого на ярмарке жизни, как пожар, пылают медальоны крабов на уличном лотке, зонтики рвутся в небо над веселым фруктовом развалом, дрожат блики в каналах красавицы Венеции, чистым и таинственным золотом облит купол Исаакия и языком пламени в ночи бросается в синее море черноморский Котор...

Круглая дата часто сподвигает творцов к каким-то выспренным манифестам, 60 лет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 жизненный водораздел. У Дё Сон Ена юбилейный концепт обрел экзотические формы. Под потолком, над живописным путешествием парит



"иконостас" фоточек чего-то добившихс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которых угроздило быть его ровесниками: Сара Брайтман, Иоахим Лев, Ван Дамм и губернатор Лимаренко.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ый отбор, конечно ("Гомер, Мильтон и Паниковский"). И легко верится в искренность художника, уверявшего, что портрет градоначальника посреди зала — знак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за то,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одобилась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на Вокзальной, 5а. Но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перед нами образчик подспудного эстетического стеба, ибо портрет напоминает композиции из пивных крышечек в бедном детсадыке, и память опять услужливо подтягивает классику ("Заведующий гостиничным трестом... был сработан из овса. И когда художник Копытто перевозил на извозчике картину в музей, лошадь беспокойно оглядывалась и ржал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лучайно затесавшихся на вернисаж, этот рукодельный шедевр впечатлил поболее, чем великолепные живописные серии о Корее или Италии.

Но да бог с ней, с конъюнктурой, каждый творец имеет "право налево". За сорок лет в профессии не исписаться, не почивать на лаврах, сохранить в себе недовольство достигнутым как стимул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 так удастся не всякому. Его юбилейная выставка — весомый аргумент в дискуссиях, современен ли канон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в эпоху, когд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ще подменить лукавым акционизмом.

Мой мир. Мое поколение... У Дё Сон Ена эти расхожие слова вмещают и освоение космоса искусства.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он пытается постичь музыку сфер, найти формулу вдохновения и вглядывается в лица самих создателей прекрасного. Его галерея обширна, включает портреты художников Юрия Метельского, Вениамина Риделя, Олега Подсочина, поэта Сергея Тараканова, пианиста Сергея Вербицкого, аккомпанемент которого формирует эгегическую атмосферу вернисажей. Да и центральное полотно — концерт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изысканных витражах готического собора — говорит о том, какая песня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для художника Дё Сон Ена.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 (Фото: Ли Е Си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РК начинается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пособия по поддержке занятости

В РК начинается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соискателям работы, не имеющим права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й по страхованию занятости. Как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Ли Чжэ Гап, пособи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занятости.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ыплату ежемесячного пособия в размере 500 тыс. вон (450 долларов)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лицам, ищущим работу, женщинам, прервавшим карьеру, безработной молодежи и самозанятым владельцам мал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ы закрыть бизнес. На пособие имеют право те, чьи активы не превышают 300 млн вон (270 тыс. долларов)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и проработали более ста дней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KBS World

КНДР завершает «80-дневный бой»

«Никто не поможет нам и не хочет, чтобы мы были сильными и процветающими», — пишет в понедельник главный орган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напоминающая о приближении к концу «80-дневного боя». Его цель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призывае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усилия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нешней помощ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на фон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80-дневный бой» должен завершить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Восьмого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январь.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ризнал неудачу в достижении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KBS World

С новым счастьем!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пройдут в условиях ограничений

С 24 декабря по 3 января горнолыжные курорты и основ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крыты, а наполняемость в отелях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50%. Такие меры приняты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COVID-19.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иод с 23 декабря по 3 янва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 Сеуле, Инчхоне 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По своей строгости запрет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не только действующе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2,5, но и самого жёсткого - третьего по пятиуровневой шкале. Уровень 2,5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запрет меро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50 человек, а третий уровень –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Принятые меры позволяют не поднимать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о максимального - третьего, хотя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COVID-19 уж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избежать огром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к которому приведёт объявление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COVID-19 составило 985 человек, не считая заражённых,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Количество тяжёлых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ая вентиляция лёгких и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ая мембранная оксигенация, достигло трёхсот, а количество смертей увеличилось до 20 в день. Основные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приходятся на Сеул и столичный регион.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 21 по 23 декабр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шел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Они обсуждали вопросы будуще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постеп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мире. В качеств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можно привести такие события как достижение выдающихся показа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группами в главном чарте синглов США Billboard, вклю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перечень шко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в ряде стран и други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ак Ян У в обращении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ещал оказать всевозмож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азвити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становится двигателем нов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Конгресс проходил в трёх секциях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вание языка, дизайн и форма букв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340 экспертов из 31 страны выступали с докладами 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искуссиях на различные темы.

В РК подтверждён новый штамм COVID-19 у прибывших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случаи нового, более заразного штамма COVID-19 подтвердились у трёх человек, прибывших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се они – члены одной семьи.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следуют ещё одну семью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недавно прибывшую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Один из членов семьи, пожилой мужчина, скончался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Результаты посмертного анализа показали наличие у него вируса COVID-19, но его штамм пока не установлен. По данным британских инфекционистов, новый штамм мож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70% быстрее, чем старый. Как полагают, он впервые появился в Лондоне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РК, приостановили полёты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Чханвоне испытывают мусоровоз на водороде

28 декабря в городе Чханв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началось тестирование первого в мире грузовика-мусоровоза, работающего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Его грузоподъём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5 тонн. Да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разрабатывался с 2017 года при участии семи организаций и компаний. В их числе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автомоби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KATECH) и Hyundai Motors.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10 млрд вон (9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дной заправки в объёме 25 кг хватает на 350 км. Применение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позволяет избавиться от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и сильного шума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автомобиля. В 2018 году мэрия объявила Чханвон «водородным городом». В этой связи та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одород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Также город отличает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водородных заправок.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Чханвоне начали работу 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маршрутные автобусы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RKI)

Чего ожидать от символа 2021 года?

11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в 22.07 (моск) наступает Новый год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этот день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лунный цикл после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и вступает в свои права Белый или Металлический Бык.

Прошлый год, находящийся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Крысы, принес немало потрясений и изменений.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ая и непредсказуемая Крыса помогла многим начать жизнь с чистого листа. А задача Быка, управителя 2021 года – все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уравновесить,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2021 год следует после високосного и обещает быть спокойным. Символ этого года — Бык, олицетворяет следующие качества:

- трудолюбие;
- силу;
- надёжность;
- честность;
- решимость.

Стихия 2021 года – металл – приумножает эти качества. Поэтому Металлический Бык – само воплощение надёжности. Вместе с тем, главный цвет грядущего года – белый – означает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Это время для прагматиков, надёжных и сдержанных людей.

Рассудительный 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Бык трудолюбив и ценит семейные узы. Тем, кто работает честно, Бык обязательно поможет добиться долгожданного повышения, выгодно вложить средства или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за свою работу. Что касается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плана, то год должен быть спокойным. В этом поможет непоколебим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итайского календаря. Следует избегать суеты, чтобы не попасть в немилость символа года. Также год Быка обещает быть успешным для деловых и дружеских встреч и особенно для поиска своей половинки.

Гороскоп на 2021 год по знакам Зодиака

Овен

Овен в 2021 году будет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с огромной скоростью. Ваша энергия вырвется из вас с такой силой, что ее трудно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оэтому важно поставить перед собой самые амбициозные цели. Так, вы не только направите свою энергию в нужное русло, но и много достигнете. Конечно, дорога к вершине потребует от вас решительности, настойчивости и трудолюбия

Телец

Тельцам в 2021 году придется трудиться не покладая рук, приспосабливаясь к постоянно изменяющим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преодолевать препятствия. Однако, вы будете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результатом и будете вспоминать этот период, как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в вашей жизни..

Близнецы

Для Близнецов 2021 год будет сродни аттракциону «американские горк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еред вами откроются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о с другой – будет немало преград и как сложится ситуация –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ит от вас. В любом случае, обратного пути нет – только вперед! А чтобы удача всегда была с вами, используйте свое природное обаяние и умение находить компромисс.

Рак

Для Раков 2021 год станет периодом доделывать начатые ранее дела.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занятие принесет вам больш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но оно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е о том, что этим вы строите мостик навстречу своему счастливому будущему.

Лев

Для Львов в 2021 году откры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новом качестве. Но, это будет непростой год, так как старое начнет уходить, цикл движе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а новый еще не начался. Прежние цели потеряют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 а новые еще не сформированы.

Дева

Для Девы в 2021 году как никогда окажется актуальным выражение - «кто рано встает, того и тапки». Естественно, чем раньше вы будете вставать, тем больше успеете сделать. А дел окажется больше, чем достаточно. Используйте присущие вам качества – аккуратность, точность, усердие – и вы всегда будете на высоте.

Весы

Для Весов 2021 год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 удачных периодов. У вас будет множество творческих идей, которые вы сможете материализовать в жизни. Конечно, стоит быть готовым к тому, что придется от чего-то отказаться, чтобы впустить в свою жизнь что-то новое.

Скорпион

Скорпионы запомнят 2021 год как успешный и переломный.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ностью поменя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отношения в семье и кругу общения. Скорпионы быстро окунутся в водоворот событий.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этап вашей жизни.

Стрелец

Стрелец в 2021 году будет неуклонно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открывая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двери и расширяя неведомые ранее горизонты. Судьба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арит вам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о стоит быть готовым и к вызовам судьбы. Это пора позитивных перемен, когда будет меняться окружение, ваше влияние в нем, интерес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зеро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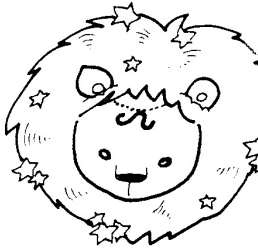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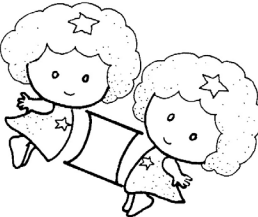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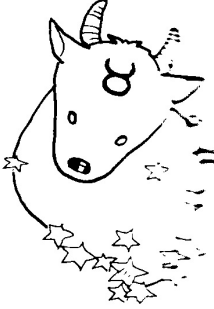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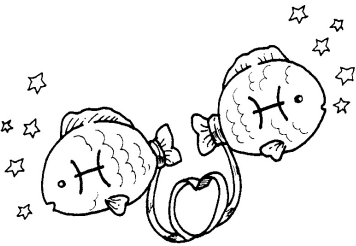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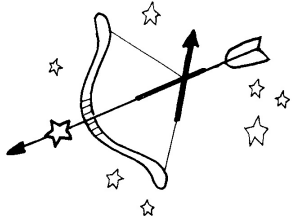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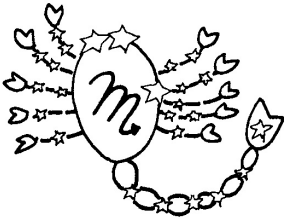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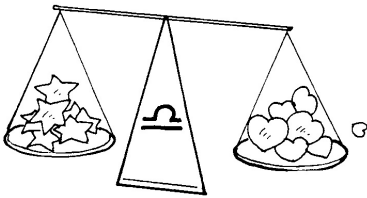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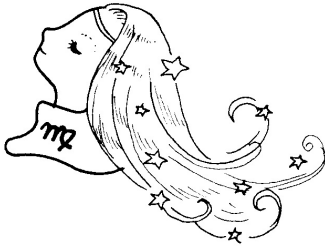
Козерогу в 2021 году по-прежнему придется много трудиться. Вам выпадает шанс найти себя в новом деле или открыть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прежнем месте работы. Используйте все шансы,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ам судьба. Само собой ничего не сложится.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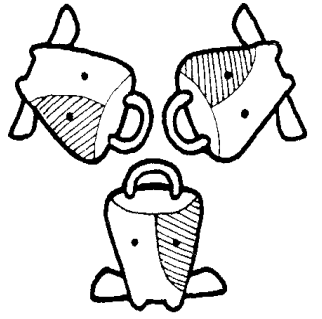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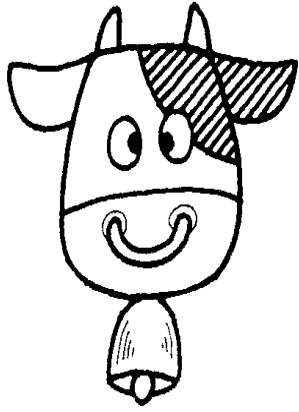
Водолей

У Водолеев в 2021 году произойдут кардин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в судьбе. Вы, словно обретете крылья и будете с наслаждением парить по жизни. Огромный прилив творческих сил и созидательных энергий поможет вам укрепить здоровье, улучшить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нач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и т.д., в общем, осуществить все свои мечты.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есь 2021 год – ваш звездный час

Рыбы

Для Рыб 2021 год будет очень значимым и судьбоносным. Вс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целей принесут результаты. Однако, вам придется подстраиваться под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щиеся условия и проявлять гибкость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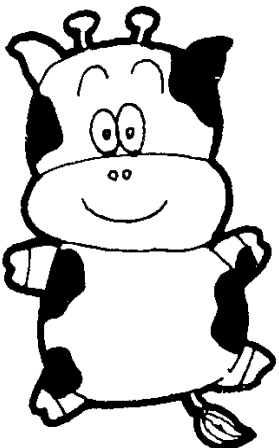
신 축 년

음력설
2.12
한식
4.5
단오
6.14
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추석
9.21
성탄절
12.25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4 21	11 28	18 6	25 13		1 12.20	8 27	15 4	22 11		1 1.18	8 25	15 3	22 10	29 17
화		5 22	12 29	19 7	26 14		2 21	9 28	16 5	23 12		2 19	9 26	16 4	23 11	30 18
수		6 23	13 12.1	20 8	27 15		3 22	10 29	17 6	24 13		3 20	10 27	17 5	24 12	31 19
목		7 24	14 2	21 9	28 16		4 23	11 30	18 7	25 14		4 21	11 28	18 6	25 13	
금	1 11.18	8 25	15 3	22 10	29 17		5 24	12 1.1	19 8	26 15		5 22	12 29	19 7	26 14	
토	2 19	9 26	16 4	23 11	30 18		6 25	13 2	20 9	27 16		6 23	13 2.1	20 8	27 15	
일	3 20	10 27	17 5	24 12	31 19		7 26	14 3	21 10	28 17		7 24	14 2	21 9	28 16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5 24	12 3.1	19 8	26 15		3 22	10 29	17 6	24 13	31 20		7 27	14 5	21 12	28 19
화		6 25	13 2	20 9	27 16		4 23	11 30	18 7	25 14		1 4.21	8 28	15 6	22 13	29 20
수		7 26	14 3	21 10	28 17		5 24	12 4.1	19 8	26 15		2 22	9 29	16 7	23 14	30 21
목	1 2.20	8 27	15 4	22 11	29 18		6 25	13 2	20 9	27 16		3 23	10 5.1	17 8	24 15	
금	2 21	9 28	16 5	23 12	30 19		7 26	14 3	21 10	28 17		4 24	11 2	18 9	25 16	
토	3 22	10 29	17 6	24 13		1 3.20	8 27	15 4	22 11	29 18		5 25	12 3	19 10	26 17	
일	4 23	11 30	18 7	25 14		2 21	9 28	16 5	23 12	30 19		6 26	13 4	20 11	27 1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5 26	12 3	19 10	26 17		2 24	9 2	16 9	23 16	30 23		6 30	13 7	20 14	27 21
화		6 27	13 4	20 11	27 18		3 25	10 3	17 10	24 17	31 24		7 8.1	14 8	21 15	28 22
수		7 28	14 5	21 12	28 19		4 26	11 4	18 11	25 18		1 7.25	8 2	15 9	22 16	29 23
목	1 5.22	8 29	15 6	22 13	29 20		5 27	12 5	19 12	26 19		2 26	9 3	16 10	23 17	30 24
금	2 23	9 30	16 7	23 14	30 21		6 28	13 6	20 13	27 20		3 27	10 4	17 11	24 18	
토	3 24	10 6.1	17 8	24 15	31 22		7 29	14 7	21 14	28 21		4 28	11 5	18 12	25 19	
일	4 25	11 2	18 9	25 16		1 6.23	8 7.1	15 8	22 15	29 22		5 29	12 6	19 13	26 20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4 28	11 6	18 13	25 20		1 9.27	8 4	15 11	22 18	29 25		6 3	13 10	20 17	27 24
화		5 29	12 7	19 14	26 21		2 28	9 5	16 12	23 19	30 26		7 4	14 11	21 18	28 25
수		6 9.1	13 8	20 15	27 22		3 29	10 6	17 13	24 20		1 10.27	8 5	15 12	22 19	29 26
목		7 2	14 9	21 16	28 23		4 30	11 7	18 14	25 21		2 28	9 6	16 13	23 20	30 27
금	1 8.25	8 3	15 10	22 17	29 24		5 10.1	12 8	19 15	26 22		3 29	10 7	17 14	24 21	31 28
토	2 26	9 4	16 11	23 18	30 25		6 2	13 9	20 16	27 23		4 11.1	11 8	18 15	25 22	
일	3 27	10 5	17 12	24 19	31 26		7 3	14 10	21 17	28 24		5 2	12 9	19 16	26 23	

절기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양력)	월 일	1 5	1 20	2 3	2 18	3 5	3 20	4 4	4 20	5 5	5 21	6 5	6 21	7 7	7 22	8 7	8 23	9 7	10 23	10 8	10 23	11 7	11 22	12 7	12 22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이석배 대사와 인터뷰

'더 많은 사할린동포가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2면의 계속)
오랜 시간동안 해외생활을 해왔지만, 최근처럼 한국이 많이 거론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K-pop, K-drama에 이어 K-방역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에서는 주말이면 k-pop 댄스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곳에서 한국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마주치고, 근처 마트에 가더라도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고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동포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분들이 안계셨다면, 어떻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1937년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17만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볼모의 땅에 버려졌을 때도,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을 지닌 고려인 1세대들은 정착 초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황무지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워 후손을 길러냈습니다. 1세대의 개척정신과 성실함을 지켜온 후손들은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일구어 놓은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러 관계가 발전해 왔고,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

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재러 동포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시고 참여해 주고 계셔서, 대사로서 러시아 땅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대사님께서 사할린 한인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역임 시기에 사할린을 다녀가실 때 항상 동포 대표들과 만나기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졌을 때 대사님께서 이 행사에 참가한 사할린 한인들을 특별히 챙겨주셨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올해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요즘은 이 법 시행령과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금년 5.26.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사할린 특별법'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고,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사할린 특별법'에 따라 동포 지원 및 피해구제, 동포 유해발굴과 봉환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러시아 대사관에서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출장소 및 동포 협회 등과 긴밀 협의하여, 더 많은 사할린 동포가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문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19로 전세계인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포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상황이 호전되어 많은 동포 여러분도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한-러 수교 30주년 관련 각종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니, 동포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방역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 신축년: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2021년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재미 삼아 보는 2021년 띠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쥐띠
60년생, 72년생, 84년생, 96년생
쥐띠는 작아서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미래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지인을 만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관계가 이루어져 분주해지는 해인데, 그만큼 체력이나 건강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특유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소띠, 2021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띠는 기존에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고집! 독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고집은 잘 될 일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구하고자 하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좋은 시기입니다.
호랑이띠
62년생, 74년생, 86년생, 98년생
그동안 그물에 걸린 느낌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면 드디어 난관을 이겨내는 운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계기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운이 뒤섞인 해로 이런 시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항심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세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
63년생, 75년생, 87년생, 99년생
토끼띠의 2021년은 '낯설다'가 가득한 해!
낯선 땅, 낯선 인물, 새로운 경험을 느낄 기회가 가득합니다. 또한 자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늘어나는 해이고 분주하게 일을 함이 늘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흥통하여 마음이 가벼우니 막힘이 없고 도모하는 일마다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혜를 발휘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소망해왔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띠
64년생, 76년생, 88년생, 00년생
용띠는 소띠 해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많은 권력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다소 지키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으며, 과감한 투자 욕구가 생길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지만 경쟁이 있는 만큼 분쟁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과 골칫거리가 당신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니 원만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뱀띠
65년생, 77년생, 89년생, 01년생
2020년에 비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해입니다. 많은 일이 생기고, 자잘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작은 것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극복하세요.
마음이 안정되어 다른 일들을 진행하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기회가 되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말띠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2021년에 본인이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계획,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해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지금 하던 대로 일을 꾸준히 진행하면 바라던 소원을 성취하고 재물이 따를 것입니다.
양띠
55년생, 67년생, 79년생, 91년생
전반적으로 마음이 조금해지고 할 것이 많아진다고 느낄 수 있는 해입니다.
2021년의 양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
조급해도 초반기에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2021년 후반에는 특유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자기 개발에 전력투구한다면

훗날 이익이 따르는 해입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원숭이띠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
2021년에는 가정생활 안에서 행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을 성취하거나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아 다소 답답한 해가 될 수 있지만, 올해의 행운은 성실함과 안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차분하게 일을 정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균형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성급하게 일을 진행한다면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한 해가 안풀린다고 그것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본다면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닭띠
57년생, 69년생, 81년생, 93년생
닭띠의 2021년은 사회적으로 행운이 많아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특유의 근면함으로 닭띠에게 오는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과 도전들을 즐기며 받아들이면 2021년 후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게 되며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본인에게 들어올 것이니, 과감하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띠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2021년 개띠는 인간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적대적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무난하게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의 시작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진행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이며 매진하는 만큼의 결과가 곧 눈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돼지띠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는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지며, 이윤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을 하던 대로 하면 특히 후반기, 가을부터 기운이 상승합니다.
올해는 맑은 앞날이 확실히 보이고 있으니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실마리가 풀리게 될 조짐이 보이며, 다만 주의할 점은,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새해 전날 사할린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전국 행사인 '의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진행되었다. 이에 다양한 자선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의료봉사단, '윤아르미 (청소년사관학교)' 사할린 지부, '우리 함께' 운동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이에 의료계 종사자 자녀들 1000여 명이 상이 선물을 받은 가운데 500 개의 선물은 연방 단체들이 제공했고 700개 이상의 선물은 사할린의 기업가들이 선물을 마련했다.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собрали «Корзины радости»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Корзины радост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благодаря отзывчивости ж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волонтеры штаба «Мы вместе» собра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адостей, мягких игрушек и канцелярских товаров. Из них сформировали новогодние подарки для детей из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семей.

Первая волна поздравлений охватила более 30 семей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Акция «Корзины радо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д эгид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Мы вмест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дновогодние д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же прошла еще одн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 «Подарки детям врачей». К ней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доброволь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Юнармии», волонтерский штаб «Мы вместе». Подарки получили более 1000 детей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500 подарков предоставили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еще более 700 сформировали при помощ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공동제작자' 기획 출발

사할린 영화오락연합기관은 사할린의 문화와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획을 시작했다. 첫 작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동영상 시리즈 '공동제작자'는 무용수 나스차 가출렌코(9세)라는 특별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알파인 스키, 지속적인 무용 훈련, 대형 무대에서의 공연 등, 3분간의 동영상은 발달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차의 삶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동제작자'의 프로듀서 일리아 샤마조브는 '노래하는 섬들' 체호브 센터가 추진한 기획에 나스차와 처음 만났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대형기획의 첫 주인공으로서 나스차가 완벽하게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공동 제작자' 시리즈의 다음 프로그램은 1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이후 계속해 한 달에 1개 에피소드를 발표할 계획

이다.

주인공들은 충분하다. 예를 들면 니콜라이 타라소브 작가는 70세의 나이에 팟캐스트(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익히고 있고, 군대를 간 체호브 센터의 배우, 그는 군입대 서약 전부터 이미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Соавторы»

Сахалинское киносуд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запустило проект об островной культуре и людях, ее создающих. Первый выпуск уже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хостинге YouTube.

Серия видеопортретов «Соавторы» началась с рассказа об особенной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девочке — танцовщице Насте Гацуленко(9лет). Горные лыжи, постоянн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тренировки и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большой сцене: даже из трехминутного видео ясно, насколько активная у Насти жизнь,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здоровья. Продюсера «Соавторов» Илью Шамазова с ней свело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Чехов-центра «Поющие острова» — для первой героини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девочка подошла идеально.

След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из серии «Соавторы» выйдет в конце января. Дальш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ускать по эпизоду в месяц. Героев хватает: например, писатель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который в возрасте за семьдесят осваивает подкасты, или актер Чехов-центра, который ушел в армию — выпуск уже снят до того, как парень давал присяг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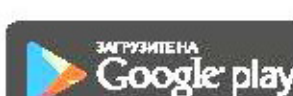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x.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